

종교지도자 이용구의 행적:

- 『시천교조유적도지』를 중심으로 -

이원섭 (서울대학교)

1. 머리말

시천교(侍天敎)¹⁾를 세운 종교지도자이자 일진회(一進會) 회장이었던 해산(海山) 이용구(李容九, 1868-1912)는 한국인들에게 종교인으로서의 면모보다는 이완용(李完用)과 더불어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이용구는 1890년 23세에 동학(東學)의 2대 교조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을 만나 동학에 입도하면서 점차 교단의 핵심적인 인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민회 조직을 통해 광제창생(廣濟蒼生)을 이루려는 그의 정치적 지향은 일본과의 합방론(合邦論)으로 표현되며 한국의 역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경술년(1910) 국권 피탈에 이르기까지 이용구가 주도했던 일진회의 적극적인 친일 행위가 그의 다른 어떤 행적보다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독립국가로서의 한국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역사 이해는 앞으로도 핵심적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국노’라는 낙인(烙印)이 이용구의 모든 행적을 쉽게 재단하여 파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심지어 주되게 조명된 그의 친일 행위조차도 평면적인 이해로 그칠 수 있으므로 사려 깊은 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일례(一例)로 그가 주도했던 일진회의 전국적인 동원은 동학교도들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적 연대가 있기에 가능했다. 이용구가 종교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진회의 성격을 파악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정체성 이전에 종교지도자로서의 이용구를 부각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시천교조유적도지(侍天敎祖遺跡圖志)』는 1915년에 시천교본부(侍天敎本部)²⁾에서 간행한 것으로, 교주의 행적들을 삽화로 표현하고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도설서(圖說書)이다. 이 도설서는 총 70개의 도설을 통해서 1대 교조 수운(水運) 최제우(崔濟愚)(1-25도(圖)), 2대 교조 해월 최시형(26-54도)뿐만 아니라 그 뒤를 잇는 지도자로서 해산 이용구의 행적(55-69도)과 제암(濟庵) 송병준(宋秉駿)의 진영(70도)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천교조유적도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천교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출간하여 배포한 서적이기 때문이다. 『시천교조유적도지』가 도설하는 이용구의 행적은 단순히 정치가로서의 이용구가 아닌 시천교 교단 지도자로서의 이용구에 대한 교단의 시각을 보여준다. 또한, 2020년 12월에 와서야 처음으로 『시천교조유적도지』의 한국어 역주와 해제가 단행본으로 출간³⁾되었을 정도로 본 자료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미비한 형편이기에 문헌을 활용한다는 그 자체에도 의의를 두고자 한다.⁴⁾ 물론 이용구와 관련된 주제 중 진보회(進

- 1) 동학 계열의 종교 교단이다. 당시 최시형 다음으로 동학을 이끌었던 손병희(孫秉熙, 1861-1922)는 종교 교단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1905년 12월 동학을 천도교(天道敎)로 명칭을 바꾸고, 1906년 일진회의 적극적인 친일 행위에 반대하며 정교분리(政敎分離)를 종헌(宗憲)으로 반포하고 교인의 일진회 활동을 금지했다. 이에 이용구와 일진회 계열의 교두(敎頭)들은 반발했지만 결국 출교를 당했고, 시천교를 세워 분립했다.
- 2) 시천교는 지도자 이용구가 1912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1913년에 송병준(宋秉駿, 1858-1925)이 이끄는 시천교본부와 김연국(金演局, 1857~1944)이 이끄는 시천교총부(侍天敎總部)로 분립되었다.
- 3) 최종성·박병훈 역주, 『시천교조유적도지: 그림으로 읽는 또 다른 동학사』, (서울: 모시는사람들, 2020).
- 4) 이구열이 『시천교조유적도지』의 최제우 석상 관련 도설(25도)을 통해 실제 석상을 분석한 글 이

步會), 일진회 연구는 수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시천교 관련 선행연구도 존재한다.⁵⁾ 다만 『시천교조유적도지』를 통해 그동안 관심 있게 주목되지 못했던 정치(일진회)와 종교(시천교) 영역에 대한 교단의 이해가 어떠하였는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시천교조유적도지』의 약소한 설명은 동시기에 시천교본부에서 발행한 역사서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釋史)』를 참조하여 보충할 것이다.

2. 개화운동과 러일전쟁 지원

『시천교조유적도지』는 총 70개의 도설 중에서 55도 해산 대례사(大禮師)의 진영(眞影)부터 이용구에 대한 행적을 소개한다. 도설을 통해 설명하는 이용구의 행적이 연대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교조의 성지, 본교교당 등 관련 주제들이 있을 때 연대순이 아니더라도 연속하여 배치하고 있다. 도설의 제목과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천교조유적도지』의 이용구 도설 제목과 특징

제목	비고	제목	비고
55. 해산대례사진상(海山大禮師眞像)	진영	62. 양교분문도(兩敎分門圖)	교단
56. 낙강감리도(洛江感鯉圖)	출생	63. 양사신원기념예식도(兩師伸寃紀念禮式圖)	교단
57. 갑진정교도(甲辰訂交圖)	민회	64. 서보장지수도(瑞寶章祇受圖)	민회
58. 일진개회도(一進開會圖)	민회	65. 가정발상도(柯停發祥圖)	교단
59. 북대전수도(北隊轉輸圖)	민회	66. 용담유허도(龍潭遺墟圖)	교단
60. 농업회사도(農業會社圖)	민회	67. 경성교당도(京城敎堂圖)	교단
61. 광무학교도(光武學校圖)	민회	68. 대원교당도(大源敎堂圖)	교단
		69. 쌍홍정서도(雙虹呈瑞圖)	교단

이용구가 일진회 회장과 시천교 지도자라는 두 정체성을 가진 것과 같이 본 문헌의 도설에서도 민회 조직과 교단 조직의 활동이 함께 묘사되고 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시천교의 관점에서도 일진회 활동 자체를 교단의 중요한 행적으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이용구의 행적으로 주목하는 일진회 활동은 57도부터 61도까지이다. 손병희와 이용구가 정치 노선에서 갈등을 겪고 1906년 2월에 천도교를 세우고, 12월에 이용구가 시천교로 분립(62도)하기 전까지 조직적으로 정치(민회)와 종교(교단)가 혼합되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먼저 동학은 조정(朝廷)에서 위학(僞學)으로 규정되었기에 공식적으로 교단을 내세울 수 없었다.⁶⁾ 1대, 2대 교조가 모두 관졸에게 체포되어 처형되었으며, 조정은 동학교도들을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무리로 보고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동학교도들은 탄압을 피해 숨어 지내다가 1904-5년 러일전쟁 시기에 기회를 보고 손병희의 지시 아래 개화운동을 벌인 것이다.⁷⁾

외에는 본 자료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를 찾기 어렵다. 이구열, 「[이구열의 근대미술 이면기 ⑥] 동학 교조 최제우의 석상과 초상화」, 『미술세계』 225 (2003): 86-91.

5) 진보회, 일진회와 관련된 갑진개화운동 연구로는 김정인, 「갑진개화운동의 정치사적 의미」, 『동학학보』 7 (2004): 63-91; 성주현, 「1904년 진보회의 조직과 정부 및 일본의 대응」, 『경기사학』 8 (2004): 431-465 등이 있다. 관련된 연구사 목록은 성주현 논문의 각주1) 참조. 이용구를 다룬 독립적인 연구로 일본어 평전 이외에 조항래, 「이용구의 일제침략 병탄 앞잡이 행각」, 『국사관논총』 28 (1991): 225-263 등이 있다. 일진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김종준, 「대한제국 말기(1904-1910년) 일진회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8)가 있다. 시천교 연구로는 김정인,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시천교의 존재양태와 활동」, 『국사관논총』 103 (2003): 1-28;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東學系列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183-216 등이 있다.

6) 박정동, 「侍天敎宗釋史」,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엮음, 김동주 옮김 (정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321.

7) 당시 진보회와 일진회에서 내건 4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황실을 존중하고 독립기초를 공고히 할 것 2. 정부를 개혁할 것 3. 군정 재정을 정리할 것 4.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것. 김정인,

따라서 교인들은 동학교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겉으로는 민회 조직을 표방할 수밖에 없었기에 민회 조직과 교단 조직이 혼합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일진회 활동을 묘사하는 명칭을 통해 민회와 교단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59번째 도설인 북대전수도(北隊轉輸圖)는 러일전쟁 시기 군량 수송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진회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명칭을 살려서 그림의 설명을 요약하면, 대례사(師)는 ‘일진회원(一進會員)’을 대동하여 일본 장관(將官)과 운송할 방법을 상의하고 나서 ‘교두(敎頭)’에게 명해 매일 ‘교도(敎徒)’ 삼천 명에게 군량을 옮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했다.⁸⁾ 북진군에 군량을 수송하는 일로 이용구에게 훈장이 수여되었을 만큼 일본에 인정받은 일진회의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두, 교도와 같은 명칭을 고려할 때, 일진회 자격으로 활동했음에도 실제적인 활동은 교단 조직이 기반이 되어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구가 각 포의 교두들과 의논하여 민회를 일으킨 당시의 정황을 생각하면 교단 조직을 통해 일진회 활동을 동원함은 예견된 모습이었을 것이다.

3. 교단 정비와 교조 신원

천도교와 시천교로 양분된 것은 손병희와 이용구의 정치 활동과 친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다. 62번째 도설 양교분문도(兩敎分門圖)에서는 “대례사와 취지가 맞지 않아(師以趣旨不合)” 교가 양분되었다고 간략히 설명하고 있지만⁹⁾, 『시천교종역사』에서는 일진회 출교로 시작된 갈등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당시 결의문, 경고문 등을 통해 손병희 측과 이용구 측의 논박문들이 오고 갔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¹⁰⁾ 수운(水雲) 향례(享禮) 때 이용구는 “두 분 선사께서 순도(殉道)하신 뒤에 원안(冤案)을 아직도 씻어드리지 못하고 정치를 아직도 개선하지 못하였다. 오늘 만일 사회를 퇴보시키고 단지 종교만을 믿는다면 내일 바로 압제가 올 것이니, 우리 회(會)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회무(會務)를 결코 폐할 수 없다”며 정치 활동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¹¹⁾ 따라서 시천교는 민회 활동을 계속 지향했고, 민회 조직(일진회)과 교단 조직(시천교)은 함께 운영되었다.

시천교 설립 이후 『시천교조유적도지』에서 묘사하는 이용구의 행적에서 주목할 것은 민회 활동을 지향하는 바가 바뀌지 않았어도 전과는 다르게 일진회 활동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용구가 교단의 틀을 정비하고,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본 도설서 자체가 ‘수운-해월-해산-제암’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따르고 있으며¹²⁾, 63번째 도설 양사신원기념예식도(兩師伸冤紀念禮式圖)는 이용구가 수운과 해월의 죄를 신원하여 기념예식을 올린 것으로 그동안 당당히 드러낼 수 없었던 동학의 숙원을 해결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으로 있었던 송병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용구가 교단 지도자로서 손병희, 김연국 사이에서 내세울 만한 업적이었다.

또한, 시천교와 해월의 수제자였던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 1857-1944)과의 관계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시천교가 분립할 시에는 천도교 측에 있었던 김연국은 손병희와 갈등을 겪고 나서 1907년 12월 시천교로 입교하여 대례사직을 수행하였다.¹³⁾ 그러나 1915년 본 도

「갑진개화운동의 정치사적 의미」, 67.

8) 최종성·박병훈 역주, 『시천교조유적도지: 그림으로 읽는 또 다른 동학사』, 239.

9) 최종성·박병훈 역주, 『시천교조유적도지: 그림으로 읽는 또 다른 동학사』, 246.

10) 박정동, 「侍天敎宗釋史」,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1』, 330-334.

11) 박정동, 「侍天敎宗釋史」,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1』, 334.

12) 천도교는 손병희로 이어지는 ‘수운-해월-의암’의 계보를 따른다.

13) 박정동, 「侍天敎宗釋史」,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1』, 337.

설서를 간행할 당시에는 송병준과 김연국이 반목하여 각각 시천교본부, 시천교총부로 갈라진 상태였다. 시천교본부에서 간행한 본 도설서에는 의도적으로 김연국의 행적을 배제하여 그 시기 일진회를 주도했던 이용구의 행적 대신 교단 내의 활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권이 피탈되고 일진회가 해산하기 전까지 여전히 민회(일진회)와 교단(시천교)은 밀접했지만, 교단의 관점에서 이용구의 행적을 묘사할 때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맺음말

『시천교조유적도지』를 통해 이용구 행적에서 겹쳐서 드러나는 민회와 교단의 두 영역을 교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주목하였다. 시천교 설립 이전에는 민회 조직과 교단 조직이 혼합된 양상을 그대로 수용하여 묘사했다. 동학이 조정에서 공인받지 못했던 상황과 교단 조직을 기반으로 민회 조직이 세워진 당시 정황이 반영되었다. 반면, 시천교 설립 이후 이용구의 행적은 교단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묘사됐다. 민회 조직과 교단 조직이 함께 운영되었지만 일진회 활동은 생략되었으며, 김연국과 반목하게 된 도설서 간행 때의 상황과 맞물려 이용구가 교단 지도자로서 차별성을 보여주는 업적들이 묘사됐다.

이용구는 일진회가 강제로 해산당한 이후 허탈한 마음과 병환으로 고생하면서 마지막 2년을 보냈다. 천도교에서 출교당하면서까지 고수했었던 정치 활동에서 떠나 수도(修道)에 전념하던 이용구는 1912년 5월 22일 세상을 떠났다.¹⁴⁾ 도설서에는 이용구의 말년에 교조의 탄생지와 수도터 조성을 명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¹⁵⁾ 정치인 이용구가 아니라 종교인 이용구의 모습에 집중한다면,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의 진심과 정치 활동의 성격이 재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정동, 『侍天敎宗釋史』, 시천교본부, 1915.
 ———, 『侍天敎祖遺跡圖志』, 시천교본부, 1915.
 김정인,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시천교의 존재양태와 활동」, 『국사관논총』 103 (2003): 1-28.
 ———, 「갑진개화운동의 정치사적 의미」, 『동학학보』 7 (2004): 63-91.
 김중준, 「대한제국 말기(1904-1910년) 일진회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8.
 ———, 「국권상실에 대한 일진회의 인식 - 문화화론과 합방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2011) 95-120.
 박정동, 「侍天敎宗釋史」,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엮음, 김동주 옮김(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198-350.
 성주현, 「1904년 진보회의 조직과 정부 및 일본의 대응」, 『경기사학』 8 (2004): 431-465.
 이구열, 「[이구열의 근대미술 이면기 ⑥] 동학 교조 최제우의 석상과 초상화」, 『미술세계』 225 (2003): 86-91.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東學系列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183-216.
 조항래, 「이용구 - 매국노인가, 한·일친선의 선구자인가」, 『광장』 151 (1986): 211-218.
 ———, 「이용구의 일제침략 병탄 앞잡이 행각」, 『국사관논총』 28 (1991): 225-263.
 최중성·박병훈 역주, 『시천교조유적도지: 그림으로 읽는 또 다른 동학사』, 서울: 모시는사람들, 2020.

14) 송병준은 이용구의 묘지(墓誌)를 찬(撰)하였는데, 일진회 해산 이후에 다시는 시사를 말하지 않고 도를 닦는 일에만 전심하였다고 썼다.

15) 65번째, 66번째 도설이다. 이용구는 1911년에 박형채(朴衡采)에게 명하여 그동안 방치되었던 수운의 탄생지와 용담(龍潭)의 수도터를 조성했다.